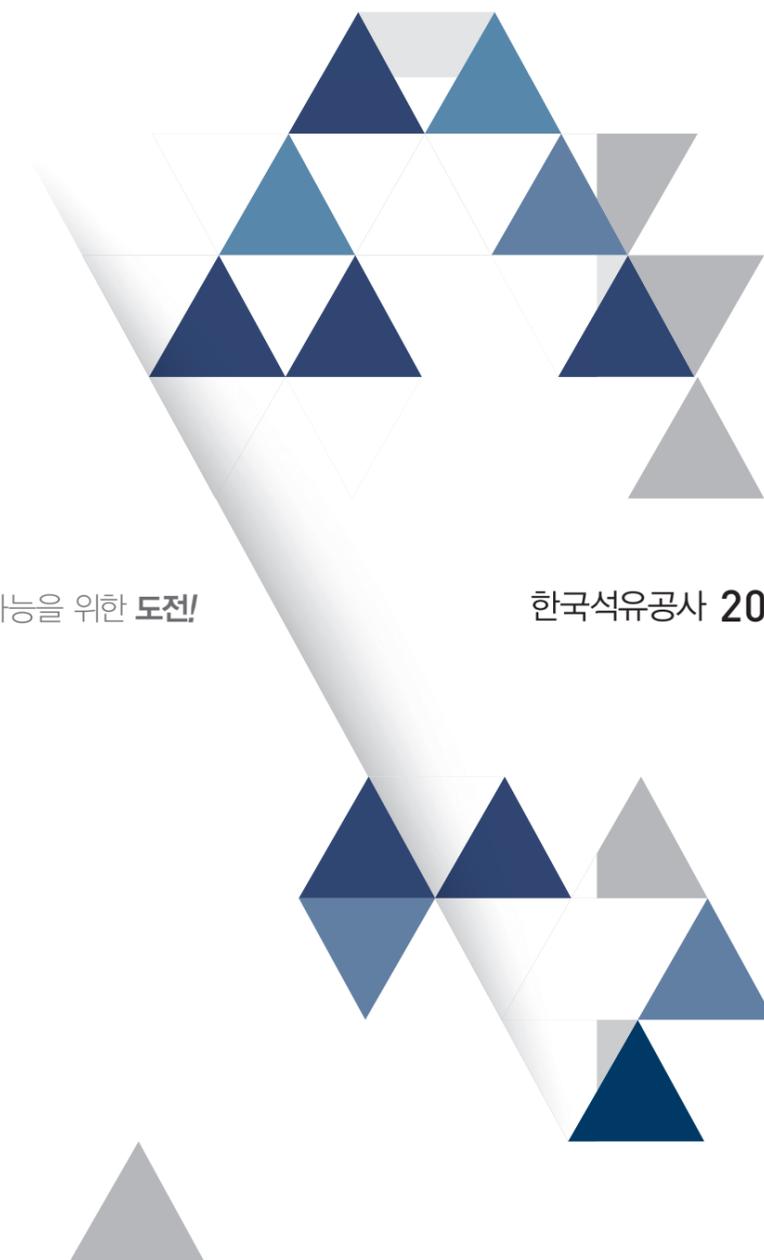




Creating Value **Beyond Energy**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도전!

한국석유공사 2017



# CREATING VALUE BEYOND ENERGY

대한민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린 한국석유공사!

국내외 석유개발사업과 석유비축사업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에 앞장서는 한국석유공사는

희망의 에너지로, 생존을 확보하는 자세로 2017년 다시 태어납니다.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도전!

효율적인 자산 운영과 글로벌 통합 경영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한국석유공사의 내일을 기대해주시요.

## 설립목적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미션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

## 비전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 전략목표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

# KNOC's CHALLENGE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전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도전은 쉽지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장량



2010  
1,133.1  
백만 배럴



2017.6  
1,389.6  
백만 배럴

생산량  
(일평균)



2010  
142.6  
천 배럴



2017.6  
175.3  
천 배럴

비축량  
(확보량/저장가능용량)



2010  
87.2/146.0  
백만 배럴



2017.6  
95.3/133.2  
백만 배럴

트레이딩물량  
(누적)



2010  
100.0  
백만 배럴



2017.6  
188.8  
백만 배럴

오피넷이용자수  
(일평균)



2010  
5.6  
만 명



2017.6  
26.9  
만 명

알뜰주유소



2012  
844  
개



2017.6  
1,174  
개

# Another World Another Lucky

한국석유공사에 있어 또 다른 세상은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석유개발사업

국가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자원의 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석유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국내외 석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7년 6월 말 기준, 17개국에서 탐사 및 생산 26개 사업에 참여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유전 개발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베트남 15-1 광구에서의 대규모 석유 발견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페루 등에서 석유자원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세계 유전개발의 주요 거점 지역인 미국, 캐나다, 영국, 카자흐스탄 등에서 공격적인 M&A를 통해 해외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개발 노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UAE, 이라크 등 중동 국가로의 진출 등을 통해 공사는 2017년 6월 말 기준, 일평균 175.3천 배럴을 생산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생산량(천 배럴)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석유 탐사

한국석유공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성장 동력, 매장량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의 저유가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석유 탐사에 대한 전세계적 투자가 감소했지만, 공사는 기존 탐사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 실시로 추가 투자를 최소화하며 2016년 대규모 신규 탐사 자원량(원유 257.4백만 배럴, 가스 1,538bcf)을 확보했습니다. 공사는 탐사투자비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며,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통한 효율 극대화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확보 매장량(백만 배럴)



###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킨 국내석유개발

한국석유공사는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국내 석유 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울산 남동쪽 대륙붕에서 양질의 천연가스층(동해-1 가스전)을 발견 후 개발, 2004년부터 가스 생산을 통해 산유국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최근에는 동해-1 가스전과 인근 구조의 가스층(동해-2 가스전)을 연계 개발, 2016년부터 동해-2 가스전의 가스 생산을 개시하며 산유국의 지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3개의 탐사 프로젝트는 추가 석유자원 발견의 희망을 품은 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1 가스전 생산량(누적)

173 bcf      3.3 백만 배럴



가스 컨테이너(초경질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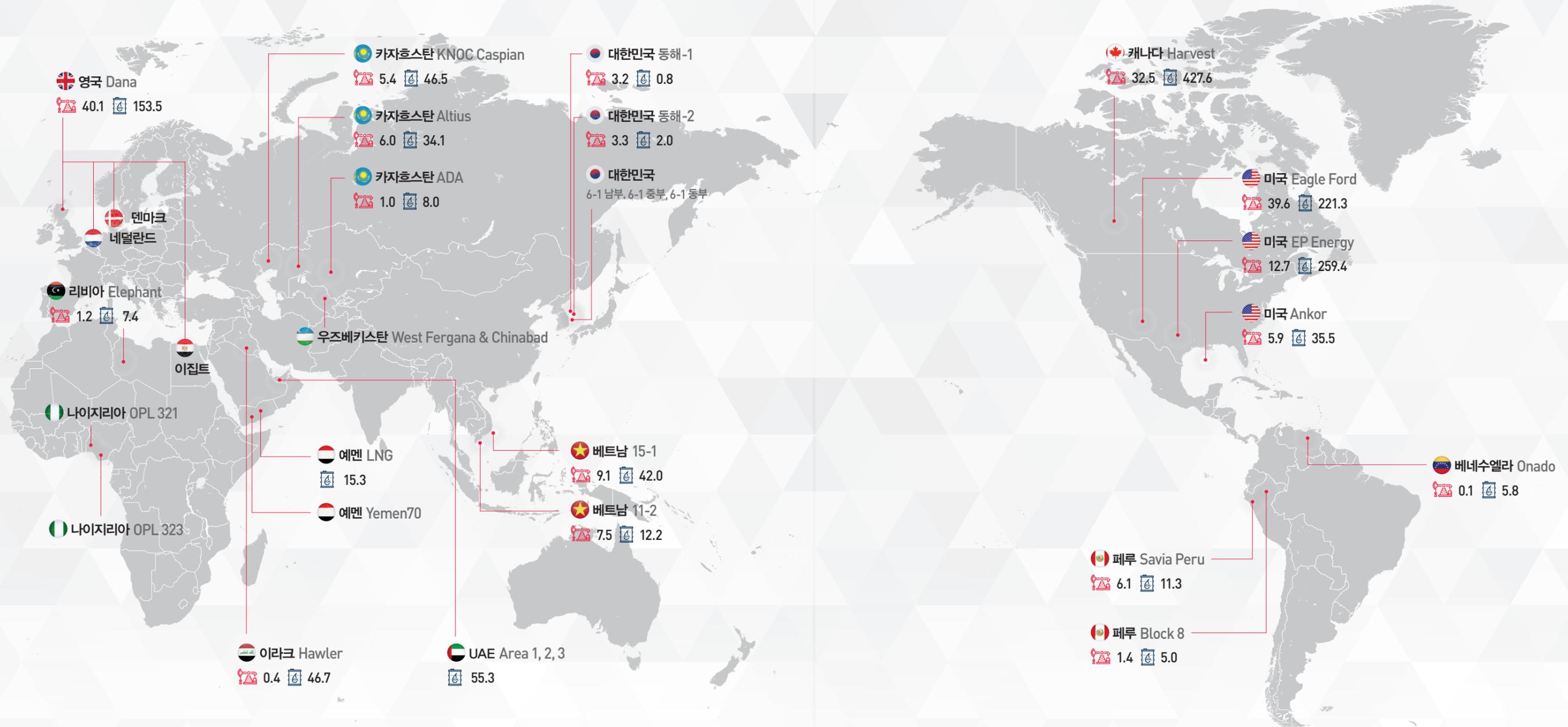


# E&P WORLDWIDE

국가 석유자원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석유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국내외 석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총 17개국 26개의 국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일평균 생산량 : 175.3천 배럴  
 • 매장량 : 1,389.6백만 배럴  
 ※ 공사 지분 몫 (2017년 6월 말 기준)

일산량(천 배럴) 매장량(백만 배럴)



## 석유비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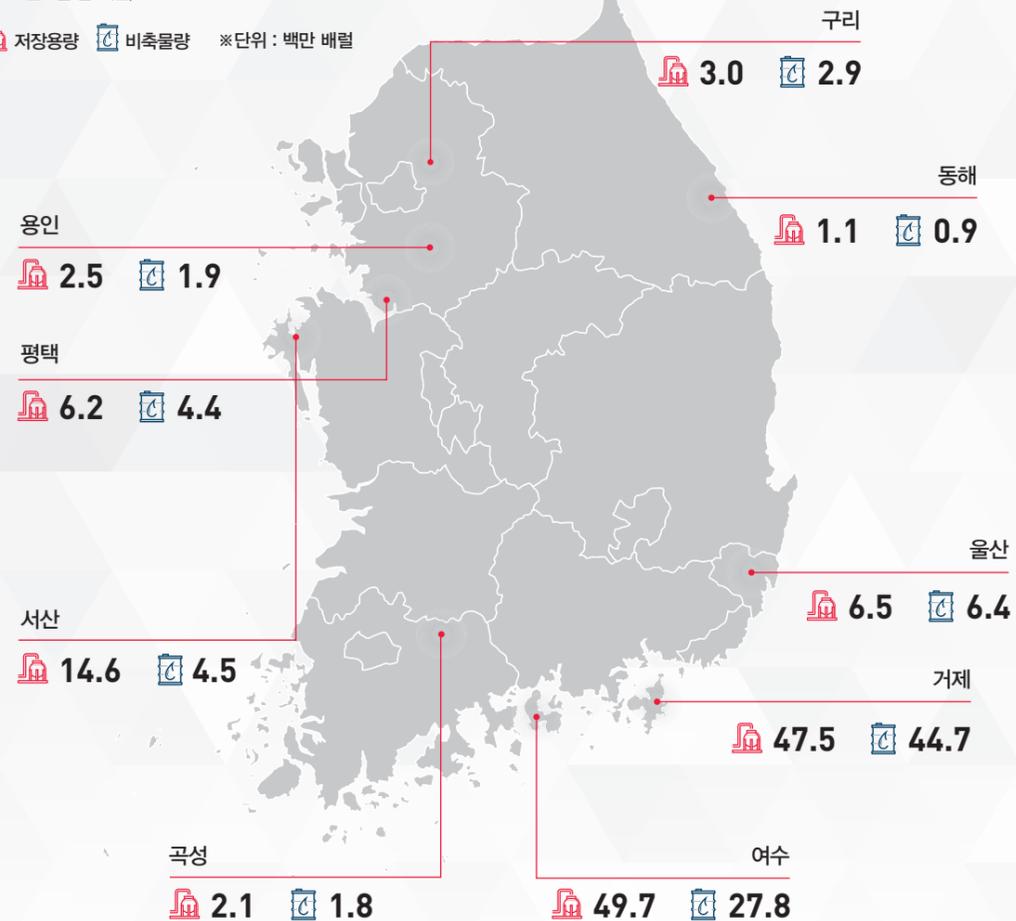
###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석유전략비축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 시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비축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석유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133.2백만 배럴 용량의 비축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46백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의 석유비축계획 목표에 따라 매년 정부 비축유를 확보, 거제, 여수, 서산 등 국내 9개 석유비축기지에 95.3백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IEA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약 109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석유수급 불안요인 발생 시에 긴급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불안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총 저장용량 : 133.2백만 배럴
- 총 비축물량 : 95.3백만 배럴

(2017년 6월 말 기준)

🏠 저장용량 🏠 비축물량 \*단위: 백만 배럴



### 무사고 무재해 비축시설 관리

한국석유공사는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 향상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16년 연속 무사고·무재해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진과 화재 대비 대응 체계 구축 및 시설물 보완으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일부 노후화된 저장탱크 시설을 지하화 대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석유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한국석유공사는 본연의 비축 목적을 지키면서 비축자산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석유비축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유시황 분석을 통해 보유한 비축유와 비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석유트레이딩

1999년부터 국제석유시장의 가격 변동성(월물간·계절간)을 활용하여, 원유·석유제품 및 LPG의 트레이딩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수익은 비축유 증량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국가 석유비축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비축

1999년부터 공사 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 산유국 등의 원유를 유치·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유국은 공사의 비축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동북아 물류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공사는 수익 증대와 함께 석유 비축수준 제고도 가능해졌습니다.



#### 비축자산대여

1982년부터 국내 석유수급 위급상황 시 공사 보유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국내 정유사 등에 적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축자산대여 사업을 통해 국내 석유수급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며, 석유비축 사업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 석유 유통구조 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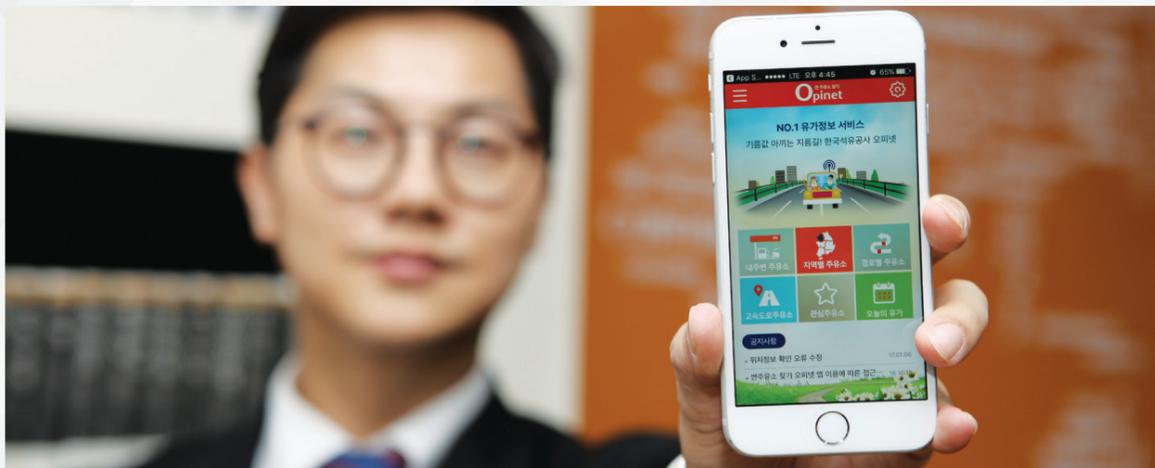


### 알뜰주유소

국내 석유유통시장 내 경쟁 촉진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2011년 12월 알뜰주유소가 도입되었습니다. 석유제품의 공동구매와 공사 저장시설 활용을 통해 저가의 석유제품 공급이 가능한 알뜰주유소는 국내 석유제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1,174개(전국 주유소의 약 9.8%)의 알뜰주유소가 운영되며, 국내 석유시장을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오피넷

한국석유공사는 실시간으로 주유소별 유가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여 주유소 간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오피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1만 2천개 이상의 주유소와 2천여 개의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 정보를 일 6회 수집,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IT서비스 매체를 통해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일평균 26.9만 명의 국민이 오피넷을 이용하며 유류비 경감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넷은 가격정보뿐 아니라 불법행위업소 공표, 농업용 면세유 가격 공개 등 정보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페트로넷

한국석유공사는 국내외 석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하여 신속정확한 석유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석유정책 수립 및 학계의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국내외의 최신 석유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온라인 종합 석유정보망인 페트로넷(www.petronet.co.kr)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넷에서는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석유뉴스, 유가동향 등 뿐 아니라, 가격을 포함한 국제석유시장 정보, 국내석유수급 동향분석 등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속적인 연구개발

한국석유공사는 기술개발과 기술자립을 위한 중장기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일샌드 및 셰일오일,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의 연구는 캐나다, 미국 등의 공사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류층 시뮬레이션, 원유 회수증진 등 유가스전의 경제적인 개발을 위한 석유공학의 핵심기술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핵심기술 자립을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자립 3개년 계획'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 160여명의 핵심기술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기술역량 구축을 바탕으로 공사에 비해 석유개발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국내 민간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전문 기술인력을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중인 UAE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파견하거나, 자문지원 인력 pool을 구성해 요청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내 E&P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공사의 기술력과 인적역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